



EY Entrepreneur Of The Year™

2022 Korea

 EY Entrepreneur
Of The Year™


EY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CONTENTS

GREETINGS	03
OVERVIEW	04
HOW THE PROGRAM WORKS	06
2022 JUDGING CRITERIA	07
2022 JUDGING PANEL	08
2022 AWARD CATEGORIES	10

2022 AWARD WINNERS	12
2007-2021 WINNERS AND JUDGING PANELS	44
PROGRAM MAP	60
PROGRAM PARTNERS	64

THE UNSTOPPABLE ENTREPRENEURS

GREETINGS

사람도, 기업도 불확실성 앞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단지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되려 과감한 ‘역발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장과 혁신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공동체의 미래를 구축하는 이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리더, 혁신가, 선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EY는 이들을 ‘EY 최우수 기업가(EY Entrepreneur Of The Year)’라고 칭합니다.

올해 6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EY World Entrepreneur Of The Year)을 수상한 가스톤 타라투타(Gaston Taratuta) 역시 그런 기업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디지털 광고 회사 알레프(Aleph)를 이끄는 그는 단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거나 광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 회사들의 디지털 플랫폼 진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신흥경제 국가들의 광고 시장 주체들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라는 분야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이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미래 세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양성된 인력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업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EY 최우수 기업가상이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EY는 이처럼 세상에 영감을 주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함으로써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세계 최고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6년에 제정되어 현재 전 세계 60개국, 145개 이상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제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오늘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



OVERVIEW



EY 최우수 기업가상

1986년 미국에서 시작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세계 최고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드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기리기 위한 시상식입니다.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한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약 60개 국가, 145여 개 도시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전 세계 최고 기업가들에게 시상되고 있습니다.

The EY Entrepreneur Of The Year is the world's most prestigious business award. The program wa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in 1986 to honor entrepreneurs whose ingenuity and perseverance have created and sustained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This year EY Entrepreneur Of The Year is celebrating its 36th anniversary. Over the years, the program has expanded to 145 cities in 60 countries with awards presented annually to over 1,000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and innovative entrepreneurs. It has become the hallmark of success for recognizing entrepreneurs.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각 국가의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는 매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리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에 참가해 다른 나라의 수상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가 선정됩니다.

Each year, the country winner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in Monte Carlo, Monaco to be inducted into the EY World Entrepreneur Of The Year Academy during a recognition awards gala.

The EY Entrepreneur Of The Year Korea winner will represent Korea at the annual EY World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held in Monte Carlo and vie for the prestigious WEOY title with the other winners from 60 countries.

THE RECOGNIZED NAMES OF EY ENTREPRENEUR OF THE YEAR WINNERS

세르게이 브린 Sergey Brin
래리 페이지 Larry Page
구글, 미국 Google Inc., US

제프 베조스 Jeffrey Preston Bezos
아마존닷컴, 미국 Amazon.com, Inc., US

고든 무어 Gordon Moore
故밥 노이스 The late Bob Noyce
인텔, 미국 Intel, US

양 위안칭 Yang Yuanqing
레노버, 중국 Lenovo Group Limited, China

하워드 슐츠 Howard Schultz
스타벅스, 미국 Starbucks Coffee Company, US

J.W. 빌 메리어트 J.W. Bill Marriott, Jr.
메리어트 호텔 그룹, 미국 Marriott International, Inc., US

레모 루피니 Remo Ruffini
몽클레어, 이탈리아 Moncler, Italy

기 랄리베르테 Guy Laliberté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Cirque du Soleil, Canada

제프 와이너 Jeff Weiner
리드 호프만 Reid Hoffman
링크드인, 미국 LinkedIn Corporation, US

가레스 윌리엄스 Gareth Williams
스카이스캐너, UK-스코틀랜드 Skyscanner Limited, UK-Scotland

닉 우드만 Nicholas Woodman
고프로, 미국 GoPro, US

안드레아스 카우프만 Andreas Kaufmann
알프레드 쇼프 Alfred Schopf
라이카 카메라, 독일 Leica Camera AG, Germany

HOW THE PROGRAM WORKS

후보자 선정

설립 후 최소 2년이 지난 기업의 오너, 설립자 또는 최고 경영자로서 최근 성과가 탁월한 경영자들이 EY 최우수 기업가상의 후보자가 됩니다.

Candidates

To be eligible to receive an EY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the candidate has to be:
The owner/founder/CEO responsible for the recent performance of a company that is at least two years old.

심사 과정

심사위원단은 선별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상 부문 및 수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상자는 다음 페이지의 네 가지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됩니다.

Judging process

The independent judging panel singles out categories and awardees founded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nominations. The judges are allowed complete discretion in determining categories and award recipients.

2022 JUDGING CRITERIA



2022 JUDGING PANEL

심사위원단은 유능한 기업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경륜과 통찰을 지닌 분들로 재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리더 및 기업가적 역할 모델이 되는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judging panel comprises of highly visible and respected leaders in the business and academia arenas as well as entrepreneurial role models who possess the necessary experience and commercial acumen to spot talented entrepreneurs.



임종룡 | 전 금융위원장
JONG-YONG YIM
Former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손현덕 | 매일경제 부사장 / 주필
HYUN-DUCK SOHN
Vice President /
Executive Edi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황인태 | 중앙대학교 교수
IN-TAE HWANG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한종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JONG-SOO HAN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송재용 | 서울대학교 교수
JAE-YONG SONG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유승원 | 고려대학교 교수
SEUNG-WEON YOO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범진규 | (주)드림시큐리티 회장
JIN-KYU BEOM
CEO and President of
Dream Security Co., Ltd.

2022 AWARD CATEGORIES



산업 부문

이 상은 각 산업 부문의 대표로서 모범적인 경영으로 탁월한 재무성과를 내고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됩니다. 이 중 영예의 마스터 수상자로 뽑힌 기업가는 한국을 대표하여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되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Industry

This award pays tribute to exemplary entrepreneurs who show entrepreneurship as a role model representing innovative entrepreneurs. The Master award recipient will be selected among the Industry Winners, to go on to represent Korea as the overall national winner at the 2023 EY World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in Monte Carlo, Monaco.

패밀리 비즈니스

이 상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서 기업을 이끌어온 가족 기업가에게 수여됩니다.

Family Business

This award is given to family entrepreneurs who have succeeded their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the founder.

라이징 스타

이 상은 단기간 내 뛰어난 재무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에게 수여됩니다.

Rising Star

This award salutes the entrepreneur whose business has shown future growth potential based on financial profit and performance.

여성 기업가

이 상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을 운영하는 유능한 여성 기업가에게 수여됩니다.

Women Entrepreneur

This award is presented to the high-potential women entrepreneurs whose businesses show real potential to scale.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 상은 경제적인 목적보다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가에게 수여됩니다.

Social Enterprise

This award is given to entrepreneurs who have demonstrated soci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economic purpose in order to address social issues.

2022 AWARD WINNERS

*Congratulations,
Winners!*

Manufacturing



KG그룹 | KG Group

곽재선 회장

JEA-SUN KWAK Chairman

Family Business



인탑스주식회사 | Intops Co., Ltd.

김재경 회장 | 김근하 대표이사

JAE-KYUNG KIM Chairman
KEUN-HA KIM CEO & President

Women Entrepreneur



(주)하이랜드푸드 | Highland Foods Co., Ltd.

윤영미 대표이사

YOUNG-MI YOUN Founder & CEO

Social Enterprise



베어베터 | BEAR.BETTER.

김정호 대표이사

JEONG-HO KIM Founder / CEO

Rising Star



당근마켓 | Dangeun Market Inc.

김재현 대표이사 | 김용현 대표이사

JAE-HYUN KIM CEO
YONG-HYUN KIM CEO

**2022 AWARD
WINNERS**



MANUFACTURING

“
**'고객, 구성원, 투자자'가
만족하는 회사를 위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합니다.**

KG그룹 | KG group

곽재선 회장 | JEA-SUN KWAK Chairman

곽재선



KG케미칼 이전부터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첫 사업은 직장 선배와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선배와도 잘 지냈지만 딱 한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선배는 사업 잘되고 있으니 쓸데없이 욕심부리지 말자고 했었죠. 이런 갈등을 겪던 중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걸으며 본격적으로 저 혼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혼자 사업을 하시니 어떠셨나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동업했던 것이고, 가장 잘한 것은 동업을 그만둔 것이라고요. 사업을 혼자 하니 무엇이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죠. 저는 늘 새로운 일들이 궁금하고, 어떤 일이 눈에 띄면 그 일에 대해 파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일 자체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KG그룹은 철강이나 화학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IT, 컨설팅, 교육, 식음료 등 사업을 확장해 오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M&A'라는 단어를 그리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이 있는데 '회사를 잘 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잘하려 하지 말고 선택 후에 잘하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지 말고 결혼 후에 잘하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잘할까요? 선택 후에 잘한 것을 마치 선택 잘한 것처럼 말하니 서운함이 생기죠. 누군가는 저에게 어떤 회사를 인수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되문죠. 당신에게 이 회사의 경영을 맡겼을 때 과연 잘할 수 있느냐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많고, 잘 나가는 회사는 흥미 없어요. 제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제 손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손을 거친 회사들은 어딘가 약간씩 불편한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회사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기회가 왔을까요? 아마 기회가 없었겠죠. 더 좋은 사람들, 더 돈 많은 사람이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불편하니까 저에게 온 거죠. 저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정상화합니다. 수술이든, 약물치료를든 집도의로서 환자를 살리려고 하죠. 그 자체가 보람이고 성취감이나 행복감도 훨씬 큼니다. 저에게는 잘 되는 회사는 의미 없어요. 지금의 회사들 역시 대부분 아픈 상태로 만났고요.

완벽하지 않은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한계를 두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은 사실 보지 않은 일이고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영화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며 말이 되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다 가능한 일이 됐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싶어요.

그래도 KG그룹 내 많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G그룹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어요. 각자 자기 영역 안에서 세상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의 역할은 회사의 가치관과 존재 이유, 꼭 지켜야 할 원칙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영역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KG그룹의 부품으로 하나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회사를 사람으로 자주 비교하는데 요, 저는 뇌의 역할을, 우리 부장은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왼쪽 새끼발가락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고 왼쪽 새끼발가락이 결코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발가락에 가시 하나 넣으면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뇌와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제가 맡은 동안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온 힘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KG그룹을 지속 가능하게 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KG그룹의 회사마다 목표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KG그룹을 관통하는 비전은 있습니다. 바로 '밖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이는 대단한 봉사활동이나 많은 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커피 파는 회사라면 카페에서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런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구성원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였으면 합니다. 회장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아주 멋있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객, 구성원, 투자자’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비스든, 상품이든 세상에 필요한 물건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회사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치 않은 걸 내놓는다면 회사는 지속할 수 없겠죠. 즉,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계속 만들어 내야 기업은 지속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려고 모여 있지는 않아요. KG그룹 직원들이 회사에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모여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모인 거예요.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행복감을 유지하며 성취감도 느끼겠죠. 이처럼 기업은 구성원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게 하나 차리는 것과 다릅니다. 내 돈으로 가게 차리면 간단하지만, 기업에는 투자자나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외상도 생기고요. 은행이나 주식을 산 사람들도 무언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이처럼 기업에는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관계를 '투자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과 투자자, 이들을 지속해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 제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만족을 잘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책임감’ 아닐까요? 앞서 언급한 구성원과 투자자는 잊고 본인의 사심이 개입되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요. 어딘가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편한 상황에서 개인이 대가를 얻으면 범죄자가 되는 거겠죠. 구성원과 투자자의 만족이 우선이고, 개인의 만족은 그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회장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회사 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도의가 '이번에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고쳐봐야겠다, 이번에는 폐 환자를 고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듯,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또 체력과 시간이 된다면 할 것입니다. 아픈 회사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본 내용은 수상자와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KG그룹은 1985년 설립 이래,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자동차, 화학'을 비롯해 친환경·에너지, IT, 컨설팅, 교육, 미디어, 레저, F&B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 가치 창출을 위한 '위대한 사고(Think Great)'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속과 바로고 좋은 성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KG Group, from its first establishment, has been fully engaged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advancing national economy through various businesses from mainstream industries such as steel manufacture, automobiles, and chemical to eco-friendly energy, IT, consulting, education, media, leisure, and F&B. It has been striving to b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based on having new challenges that no one has ever tried and the mind of "Think Great" to create values. It will walk towards a better future through meaningful sustainability and upright growth.

**2022 AWARD
WINNERS**



FAMILY BUSINESS



“

40년 제조 노하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인탑스주식회사 | Intops Co., Ltd.

김재경 회장 | JAE-KYUNG KIM Chairman

김근하 대표이사 | KEUN-HA KIM CEO & President

“겸화박성 근본창행(謙和朴誠 勤本創幸)”

- 인탑스주식회사 김재경 회장

1981년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인탑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출기 두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형 부품을 만들고 납품했죠. 그러다 삼성 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게 되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구미에 공장도 짓고 중국과 베트남 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다양한 영역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코로나19 신속 진단 기술을 비롯한 의료 기기와 로봇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삼성전자와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항상 부지런하게 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면 복이 오는가 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우리 회사를 유심히 보길래 들어오시라고 했죠. 알고 보니 삼성전자의 구매과장이더라고요. 그분이 샘플을 보여주며 원래 회사에서 더는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만들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해당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아 저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품질이 이전의 것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기업과 오랫동안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나로서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인탑스 창업주로서, 인탑스가 꼭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업 초기부터 '겸화박성 근본창행(謙和朴誠 勤本創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겸손하고 화목하고 순박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김근하 대표 역시 같은 가치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격변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시기를 모두 직접 겪으며 느끼신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잃지 말아야 할 기업이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 자금, 알',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경영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수시로 하며 그들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덕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내 것을 먼저 내어주면 결국 상대방도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선대 기업가이자 창업가로서, 김근하 대표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인덕을 베풀고, 급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지 말고 천천히 잘 살피며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편파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조업에서 제조 플랫폼으로”

- 인탑스주식회사 김근하 대표이사

2015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대표로 첫 출근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사업에는 늘 골목이 있습니다. 대표로 취임하던 당시, 회사가 이전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저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새로운 회사로만 들어가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제가 대표가 되었을 때, 인탑스는 이미 30년이 된 회사였습니다. 제조업의 분위기는 무겁고 경직된 편입니다. 인탑스가 창의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인탑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인탑스는 외관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어요. 외관에서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에서 CMF*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과 선배님들이 30, 40년간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고, 최근에는 완제품 조립까지 확장할 수 있었죠.

다만, 인탑스가 지닌 역량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인 데다 우리의 기술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인탑스를 ‘제조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사를 찾아다니기보다 고객사에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고, 고객과 소통하며 그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제조 플랫폼으로서 첫 출발점이 바로 ‘히다(hida)랩’입니다. 히다랩은 CMF 전문 라이브러리, 인탑스가 지닌 모든 기술을 모은 사이트입니다. 히다랩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각종 SNS를 통해 열심히 알리니 자연스럽게 고객이 찾아오더라고요.

*CMF: 디자이너가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로 색채(Color), 소재(Material), 마감(Finish)를 뜻하는 기술 용어

2세 경영인으로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주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탑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의 화두인 ESG는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저희는 ‘E(Environmental, 환경)’ 분야를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은 탄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회사 핵심 가치인 ‘상생’ 관점에서 ‘탄소 최소화’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인탑스가 태생적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처럼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인탑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레진을 개발하고, 풍력이나 수소 발전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죠.

인탑스는 스타트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지요?

‘동반 성장’이라는 경영 철학의 한 부분으로 ‘페이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탑스가 지닌 제조 경쟁력을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이디어와 기술이 좋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조를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그곳은 제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단가도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양산을 해보면 품질이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단가를 올려서 결국 제품 생산에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조 공장도, 기술도 많은데 왜 외국에 가서 실패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고민 끝에 인탑스가 지닌 40년간의 제조 역량을 공유하고자 페이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탑스의 제조 경쟁력과 자본,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회장님으로부터 본받고 싶은 기업이 정신은 무엇인가요?

회장님은 도전 정신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새로운 기술 제안도 먼저 하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바른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반면, 저는 아직도 이것저것 따지고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회장님의 도전 정신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이자 회사 선배인 회장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어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정보나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하시고 오랜 시간 일하셔서 걱정됩니다. 건강하세요.



본 내용은 수상자와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1981년 설립된 인탑스는 국내와 해외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EMS 전문기업이다. 40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 가전,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제품, 의료기기, 로봇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의 베스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페이퍼 프로그램(Paper Program)’으로 스타트업과 제품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협업하고 있으며, CMF 전문 브랜드 ‘히다(hida)랩’을 통해 고객에게 색상, 소재, 마감에 대한 디자인적 영감을 주고 있다.

Intops, founded in 1981, is an EMS specialist with production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On the basis of 40 years of manufacturing expertise,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areas to include mobile devices, home appliances, automobiles, lifestyle products, medical devices, and robots, thereby positioning ourselves as the best global business partner.

In addition, through the paper program, we collaborate with startups from product design to manufacturing, and through the CMF specialized brand hida, we provide design inspiration for customers based on color, material, and finish.

Intops will continue to pursue sustainable growth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materials and high added value manufacturing.

**2022 AWARD
WINNERS**



WOMEN ENTREPRENEUR

“

**'누구나 부담 없이
좋은 고기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주)하이랜드푸드 | Highland Foods Co., Ltd.

윤영미 대표이사 | YOUNG-MI YOUN Founder & CEO

윤영미



1999년부터 23년간 축산물 수입 유통판매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수입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위축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먹거리를 수입해서 양질의 좋은 음식을 우리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첫 출근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90년대 후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미혼 여성이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특히 축산업에서는 여성 대표가 드물었죠. 사무실을 일부러 강남 도산 사거리에 잡고, 아주 거창하게 오픈팅 행사도 했습니다. 18개 외국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 한국 유명 기업의 대표님들까지 다 오셨었죠. '첫인상이 어떻게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캐나다로, 그리고 서울로 왔기 때문에 처음 본 분들이 많았고 기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살아남아야 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하이랜드푸드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없었나요?

2008년 12월 6일, MBA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예쁘게 차려입고 미팅을 하던 중 화재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불이 나서 30분 만에 모든 것이 전소했다고 하니깐요. 미팅 중이던 공급자는 미팅을 취소하고 급히 나가더라고요. 이 회사는 미래가 없기에 더 이상의 미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나요?

그날의 사고가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고속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비를 더 철저히 하자고 정신을 무장했습니다.

한 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만 제대로 들었다면, 재고를 나누어서 보관했다면 사고가 없었거나,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겠죠.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임직원이나 가족들이 제 탓이라고 비난했다면 재기를 못 했을 겁니다. 어딘가에 숨어버렸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었어요. 걱정도 많았고 힘들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뚝겠다는 남편의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처럼,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경영 노하우는 무엇이었을까요?

2009년 1월 시무식에서 공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올리고, 1년 동안 저와 대표이사 월급은 제로(Zero)로 가겠다고요. 대신 열심히 같이해서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냥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존심이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여성 사업가가 그러면 그럴 지’라는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모성 본능으로라도 절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2018년 흑자전환 이후, 많은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미래에 제가 없더라도 회사는 흔들림 없이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굳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물류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하이랜드푸드의 1년 물류 보관비만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연간 10만 톤 이상의 물건을 모두 임대 창고에 보관하니 고객들이 여러 창고를 다니며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신항 인근과 경기도 이천에 복합 물류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부산 센터는 수입 후 검역 통관의 역할을 하고, 이천의 메트로센터는 수도권 중심의 물류 센터가 될 예정입니다.



2023년 초 준공 예정인 부산센터(복합제조물류센터) 조감도

하이랜드푸드 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진출해서 소비자들이 고기를 연중 같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소비자 물가가 폭등합니다. 변수에 상관없이 서민들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꾸준히 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가안정에 ‘먹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국내 유통망을 안정화한 후에는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고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국민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 7월에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공장도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 지사를 설립했고요.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해외 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족한 물량을 채워 물가는 안정시키고, 국민은 고민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주)하이랜드이노베이션 이천센터

사실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익 창출’입니다. 반면, 물가 안정은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축산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자가 고기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일 하는지 물어보면 무역업을 한다, 식품업을 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좋은 고기를 싸게 사고 적정 이윤만 남기고 팔면, 이는 곧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자,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되더라고요. 물론 영리 기업이지만, 제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며 자긍심을 갖고 더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거래처를 부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본이나 시간 비용에 제한이 없다면,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자립준비청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도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前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본 내용은 수상자와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1999년 설립된 하이랜드푸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양질의 축산물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좋은 고기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가치 아래 국내 복합 제조물류센터의 건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및 가격 확보를 위해 미국, 스페인 등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신문 Financial Times 선정 아·태지역 500대 고성장 기업에 3년 연속(‘20-22’) 선정된 글로벌 혁신기업이기도 하다.

‘Highland Food’, founded in 1999, is a company that imports globally recognized good quality animal protein products through the global supply chain and distributes such products throughout Korea. Also, it plays an essential role of securing food supply as well as stabilizing price levels. Highland aims to enable all people to afford enjoying good quality meat by not only establishing a ‘domestic manufacturing logistics complex center’ but also continuing to establish ‘overseas subsidia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Spain to secure direct sourcing volume and stabilizing domestic prices of animal protein products from all over the world. ‘Highland Food’ is a global innovative company, and has been nominated as ‘Asia-Pacific Top 500 High-Growth Companies’ by the Financial Times, a global economic newspaper,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20-22’).

**2022 AWARD
WINNERS**



SOCIAL ENTERPRISE

“

베어베터가 필요 없을 때까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베어베터 | BEAR.BETTER.

김정호 대표이사 | JEONG-HO KIM Founder / CEO

김정호



2012년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베어베터는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베어베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베어베터는 처음부터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쪽 분야는 잘 몰랐어요. 네이버 재직 당시 임직원 자녀분 중에 발달장애인이 꽤 많았습니다. 베어베터의 각자대표인 이진희 대표의 아드님도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러다 보니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고 갔어요. 그때 저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 대학교 장학기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기보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99%다, 그러니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본인도 같이하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백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죠.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업을 만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무 아프다, 나 좀 봐달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도 못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할 기력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환자라는 거죠. 저는 발달장애인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그래서 이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알기 어렵죠. 그리고 장애라고 하면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과 독립적인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애는 사실 모든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여러 사회 문제의 당사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미혼모 중에서도 지적장애인 여성의 경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업을 만든다는 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어베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어베터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둔 이유도 궁금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주로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나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집니다. 비장애인 아이들이라면 대학에 간다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에게는 연감생심이고요. 결국 어머니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며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출근할 곳이 생기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6시에 퇴근해서 7, 8시쯤 집에 도착하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어머니에게도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히 발달장애인 한 명의 월급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베어베터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었나요?

처음에는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인쇄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애인도 복사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품질이나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각 대학교 앞에 인쇄소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장해야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년 동안 매출은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손실이 엄청났죠. 돌파구를 고민하다 찾은 것이 '연계고용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어베터처럼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과 거래를 하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해서 법인에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사업 모델을 바꾸고 성공했죠. 현재 큰 규모의 기업 506곳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고객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형태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고객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저희는 발달장애 사원을 교육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맡죠. 덕분에 발달장애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계고용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최대 50%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베어베터 덕분에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1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발달장애인 중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적었어요. 채용 공고를 내면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왔죠.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 많은 회사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은 발달장애인의 30%가 고용된 상태고, 발달장애인 스카우트는 전쟁 수준입니다. 베어베터도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베어베터가 큰 영향을 주었고, 고용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은 베어베터가 시작했던 1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방의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겨우 5%입니다. 일할 발달장애인은 많지만 갈 수 있는 직장은 없는 상황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님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올해 초 라인, 매일유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투자증권 등 다양한 기업의 투자를 받아 대구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 발달장애인 50명을 고용했구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지분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자본율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인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00명을 고용한 기업에 10%를 투자하면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죠. 이것이 바로 '브라보비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5월에 1호점 '브라보비버 대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인천과 의정부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3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베어베터에서 지방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 고용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요. 베어베터는 이미 덩치도 많이 커지고 먹여 살릴 식구도 많아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브라보비버를 지역별로, 개별적인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보비버가 잘하면 잘할수록 베어베터와 거래하는 고객 수는 줄어들 거예요. 베어베터와 거래하면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브라보비버에 투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부담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죠. 이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베어베터의 미션에 가장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기부도 하고, 재단을 통해 비영리 법인 지원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보니 비교가 되더라고요. 베어베터는 매년 150억 원의 자금이 흘러가는 지속적인 법인이에요. 비영리 단체로 그만한 돈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베어베터는 제가 100% 주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모든 수익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가 더 많아지고 규모도 커진다면 경제도 순환되겠죠.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30억의 돈이 기업의 활동으로 150억이 되고, 200억, 300억의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 - 소셜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1년 동안 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본 내용은 수상자와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2년 설립 이후 10년 간 인쇄, 제과, 화훼, 커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250명이 넘는 발달장애 사원이 일하고 있으며 500개가 넘는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에 고용 기회를 만들어 70여명의 장애 사원을 이직시켰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는 지방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소셜벤처 '브라보비버'를 시작해, 대구에서 5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Bear.Better. is a social enterprise that creates sustainable job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2, we have been hir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various business fields such as printing, confectionery, flowers, coffee, etc. for 10 years. Today, we employ over 250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work with over 500 clients. In addition, we provide employment consulting to companies that want to hi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have create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other companies and have transferred about 70 employees with disabilities. Starting this year,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we started 'Bravo Beaver'. Bravo Beaver is a social venture that creates job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provinces, and hired more than 50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aegu.

**2022 AWARD
WINNERS**



RISING STAR



“

**나눔부터 동네 가게까지,
이웃 간의 연결로
따뜻한 가치를 만듭니다.**

당근마켓 | Danggeun Market Inc.

김용현 대표이사 | YONG-HYUN KIM CEO

김재현 대표이사 | JAE-HYUN KIM CEO

김용현 김재현

당근마켓은 단시간내에 큰 성과를 거두며 2021년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두 대표님의 경영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용현 대표: 무엇보다 고객에게 집중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그 결과 많은 분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대표: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주민 간의 연결'입니다. 지역을 확장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저희가 변함없이 동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던 것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함께 회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공동 대표 체제라 힘든 점은 없었나요?

김재현 대표: 김용현 대표와 저는 MBTI가 완전히 반대일 정도로 성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김 대표는 기획자, 저는 개발자 출신이라 직무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충돌이 많습니다.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 끝에 나오는 결론이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달라서 상호 보완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은 김 대표가 잘하고, 저는 제품의 개발 관점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요.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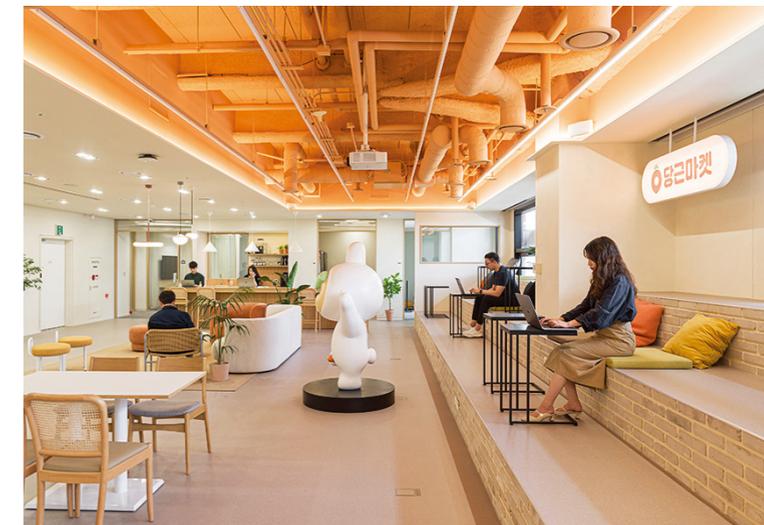
당근마켓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김용현 대표: 당근마켓은 초기부터 지역 커뮤니티를 지향해왔고, 이를 비전으로 삼아왔습니다. 동네 안에서 가치 있는 연결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위한 첫 시도가 '중고 거래'였어요. 지금은 중고 거래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동네 모임이나 동네 가게를 연결하고, 지자체와 주민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네 안에서의 접점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당근마켓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재현 대표: 저희는 중고 거래를 넘어 더 다양한 지역에 필요한 연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모임, 쿡킹 클래스, 또 지역 업체들의 단골 구독 개념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연결로 동네 상권을 활성화하며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김용현 대표: 글로벌 목표는 북미에서 성공한 첫 번째 한국 스타트업이 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아직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이사

사업 초기에 스타트업이라 갖는 불안감이나 걱정은 없었나요?

불안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초기에 당장의 수익을 좇기보다는 사용자 경험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당근마켓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연결되고 소통을 하고, 이에 사용자가 만족하면 사업 모델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당근마켓의 사업 모델은 지역 광고가 있고,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매너 온도’나 ‘벤티지’와 같은 문화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사업 초기에 이웃 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문화, 따뜻한 나눔 문화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호혜성 이론이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나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래 후기를 통해 이웃들이 서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근마켓은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당근마켓의 고유 메커니즘이 바로 ‘매너 온도’와 ‘활동 배지’ 기능이지요. 이웃 간의 따뜻한 거래 문화를 만들고, 이를 선순환 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뢰’와 ‘친절’ 등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동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친환경’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이 만들고 있는 친환경 가치는 무엇인가요?

당근마켓의 중고 거래는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새 물건을 사면 포장재와 같은 쓰레기가 발생하죠. 당근마켓은 동네 이웃들이 중고 거래나 나눔을 통해 재사용된 물건의 가치를 너무 심었을 때의 가치로 환산해 매월 리포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당근마켓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는 732만 톤으로, 이는 5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습니다. 많은 이웃이 일상에서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근마켓의 참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해야 합니다. 고객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 준비 기간을 길게 갖기보다는, 서비스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시하고 고객 관점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개선하며 성장해 가야 해요. 저희 역시 초기에는 매주 서비스를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고객을 만나지 않고 막연하게 고객이 좋아할 것이라는 상상만 가지고 만들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에게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과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당근마켓 역시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과 고객이 더 찾는 것을 먼저 찾는 것, 여기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미에서 성공한 첫 번째 한국 스타트업을 꿈꿨습니다.”

-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이사

북미 중에서도 캐나다 토론토를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도시별로 진출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동네도 봐야 했죠. 여러 도시를 검토하다 토론토로 결정했습니다. 토론토는 북미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큰 도시입니다. 북미 시장의 거점 도시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해보시니 어떤가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채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당근마켓을 전혀 모르니 지원을 쉽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소통도 어려웠고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해외 지사를 시작할 때는 대표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해외 파트너사는 대표가 아니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대표가 현지에 머물러야 사업에 속도가 난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처음 6개월에서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캐롯*’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앱(app) 자체를 북미에 맞게 현지화했어요. UX/UI* 역시 북미 사용자에게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 현지에 맞게 바꾸었고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오픈 1년 만에 월간 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가 20배 증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롯: Karrot, 당근마켓의 글로벌 서비스명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하는 사용자 환경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해 가져가야 할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선배 창업가들이 이루어 낸 성과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일 때는 잘 몰랐는데, 기업을 직접 경영해보니 규모 있는 회사를 만들고 경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반면, 후배 창업가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선배 창업가들의 업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해요. 결국,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성과로 끝내지 않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야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본 내용은 수상자와의 인터뷰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당근마켓은 국내 최초로 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연결의 가치를 실현한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 밀착)' 기업이다. 전국 지방국공 6,577개 지역에서 3,200만 국민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 지역 GPS 인증을 기반으로 한 이웃 간 믿을 수 있는 중고 거래부터 이웃끼리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동네 생활', 동네 소상공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로컬 커머스 '내 근처'까지. 주민, 소상공인, 지자체를 잇는 다양한 '연결'을 통해 생활의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당근마켓은 기술로 사람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언택트 시대에 지역 공동체와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많은 이용자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원 재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나눔과 자원 순환을 장려하는 등 ESG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며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Danggeun Market Inc. is a pioneer in harnessing the value of hyperlocal connec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worlds. Its eponymous app is a local community nurtured by 32 million users spanning 6,577 regions across the nation.

Danggeun Market provides services ranging from its secondhand marketplace enhanced with GPS neighborhood verification, to My Local, a space for neighbors to exchange useful information and, Nearby, a local commerce service linking small businesses to local residents. These services help to enrich and revolutionize the daily lives of its users by sparking connections between local residents, business owner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With social distancing pushing people further apart, Danggeun Market uses technology to rekindle the spirit of the local community with its users. It contributes to positive changes across the community and sets a good example of business ESG through facilitating secondhand transactions to promote reuse, sharing, and recycling while highlighting the environmental significance of these practices.

2007-2021 WINNERS AND JUDGING PANELS

AWARD WINNERS

2021

MASTER



김웅기 글로벌세아 그룹 회장
Woong-ki Kim
Chairman of Global Sae-A Group

Family Business



정혜승 인지그룹 부회장
Jung Hye Sung
Vice Chairman of INZI GROUP

정구용 인지그룹 회장
Jung Koo Ryong
Chairman of INZI GROUP

Alumni Awards Special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Lee Auhryung
Chairman of Daishin Securities Co., Ltd.

Women Entrepreneur-Special



김슬아 (주)컬리 대표이사
Sophie Kim
CEO of Kurly Inc.

Rising Star



범진규 (주)드림시큐리티 회장
Beom Jin-Kyu
CEO and President of Dream Security Co., Ltd.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SEOK-DONG KIM	Former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손현덕 매일경제 부사장 / 주필	Hyunduck Sohn	Vice President / Executive Edi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유승원 고려대학교 교수	Yoo, Seung Weon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전규안 송실대학교 교수	Jeon, Kyu An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한중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Han, Jongsoo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현지호 화승그룹 부회장	Ji Ho Hyun	Vice Chairman of Hwaseung Group

AWARD WINNERS

2020

Master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JungJin SEO
Chairman of Celltrion Group

Family Business



현지호 화승그룹 부회장
Ji Ho Hyun
Vice Chairman of Hwaseung Group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
Seung Hoon Hyun
Chairman of Hwaseung Group

현석호 화승그룹 부회장
Suk Ho Hyun
Vice Chairman of Hwaseung Group

Rising Star



조만호 무신사 대표이사
Man Ho Cho
CEO of MUSINSA Co., Ltd.

Women Entrepreneur-Special



이해연 주식회사 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이사
Yi Hae Yeon
CEO of HLSOURCE Co., LTD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SEOK-DONG KIM	Former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김영달 아이디스홀딩스 대표이사	KIM YOUNG DAL	CEO of IDIS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	Hyunduck Sohn	Executive edi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	Yoon, Jae Won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Jeon, Kyu An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	Choi, Jong-Hag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WARD WINNERS

2019

Master



방준혁 넷마블 회장
Junhyuk Bang
Founder & Chairman of netmarble

Industrial Products



김영달 아이디스홀딩스 대표이사
KIM YOUNG DAL
CEO of IDIS Holdings Co., Ltd.

Family Business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
Young Ju Park
Chairman of EAGON Industrial Co., Ltd.

박승준 이견산업 사장
Seung Jun Park
President of EAGON Industrial Co., Ltd.

Young Entrepreneur-Special



이진욱 해브앤비 대표이사
CHINWOOK LEE
CEO of HAVE&BE

Women Entrepreneur-Special



장성숙 우신피그먼트 대표이사
Sung Sook, Chang
CEO of WOOSHIN PIGMENT

Rising Star



성상엽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Eric Sung
CEO & President of Intellian Technologies, Inc.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Dong-Soo CHIN	Former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박은관 시몬스 회장	Kenny Park	Chairman & CEO of SIMONE	
손현덕 매일경제 대표이사	Hyunduck Sohn	Managing Direc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	Yoon, Jae Won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Jung, DoJin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	Choi, Jong-Hag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WARD WINNERS

2018

Master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Dong-Han Yoon
Chairman of
Kolmar Korea Co., Ltd.

Consumer Products



박은관 시몬스 회장
Kenny Park
Chairman & CEO of SIMONE

Industrial Products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
Sang Woong Lee
Chairman of SEBANG GROUP

Family Business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Jong W. Lee
CEO of ZEUS CO., LTD.
이동악 제우스 회장
Dongahck Lee
Chairman of ZEUS CO., LTD.

Rising Star



최두원 하이비전시스템 대표이사
David Choi
CEO of HyVISION SYSTEM Inc.

Special



안상일 하이퍼커넥트 대표이사
Sang-il Ahn
CEO & Chairman of
HYPERCONNECT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Han, Duck-Soo	Former Prime Minister
강성희	오택그룹 회장	Sung-hee Kang	Chairman of Autech Group
손현덕	매일경제 대표이사	Hyunduck Sohn	Managing Director of Maelil Business Newspaper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Jung, DoJin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Seok Woo (Tiger) Jeong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Eunju Hong	Professor of Hanyang Cyber University

AWARD WINNERS

2017

Master



김윤 삼양그룹 회장
Kim Yoon
Chairman & CEO of
Samyang Holdings Corp.

Automotive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
JAE-HA, LEE
President & CEO of SAMBO MOTORS

Technology&Industrial Products



강성희 오택그룹 회장
Sung-hee Kang
Chairman of Autech Group

Family Business



강호찬 넥센타이어(주) 대표이사
HO CHAN KANG
CEO of
NEXEN TIRE CORPORATION
강병중 넥센타이어(주) 회장
BYUNG JOONG KANG
CHAIRMAN of
NEXEN TIRE CORPORATION

Rising Star



이윤용 와이엠씨 대표이사
Youn Yong Lee
CEO & President of
YMC Co., Ltd.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	Sang-chul Lee	Former Minist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상무	Hyunduck Sohn	Chief Editor/Executive Managing Director of Maelil Business Newspaper
오홍식	엘오티베큘름 대표이사	Hank Oh	CEO of LOTVACUUM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Seok Woo (Tiger) Jeong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홍은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Eunju Hong	Professor of Hanyang Cyber University

AWARD WINNERS

2016

Master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Kim, Hong-kuk
Chairman of Harim Group

Consumer Products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LEE KYUNG SOO
Chairman/CEO of COSMAX., INC.

Technology



오홍식 엘오티베쿰 대표이사
Hank Oh
CEO of LOTVACUUM

Textile & Real Estate



김준 경방 회장
Joon Kim
Chairperson of Kyungbang Limited

김담 경방 사장
Tom Kim
President of Kyungbang Limited

Rising Star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이사
Paul Jang
President & CEO of VITZROCELL Co.,Ltd.

Special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
Han Hyun Oak
CEO of CLIO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권오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Okyu Kwon	Professor of KAIST College of Business (Finance)
김영세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Youngse Kim	Professor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Sung-Tae Yoon	CEO of Huons Global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Seungcheol Lee	Vic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Insill Yi	Professor of Sogang School of Economics	
전병준	매일경제 주간, 월간지 담당이사	Byung-Jun Jeon	Chief Editor/Direc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Sang-Won (Scott) Hahn	Chief Executive Officer of Hahn & Co.	

AWARD WINNERS

2015

Master



김범수 카카오 의장
Beom Su Kim
Chairman of Kakao Corp.

Industrial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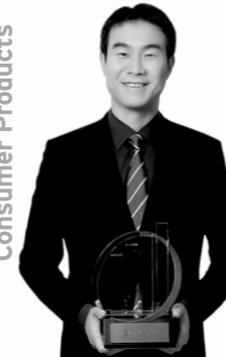
송호근 와이자-원 회장
Hokeun Song
Chairman & CEO of YG-1 Co., Ltd

Pharmaceutical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
Sung-Tae Yoon
Vice Chairman of Huons Co., Ltd

Consumer Products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Bon Hak Koo
CEO of CUCKOO ELECTRONICS Co., Ltd

Rising Star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이사
Dong-Uk Min
CEO of MCNEX Co., Ltd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Byongwon Bahk	Chairman of Korea Employers Federation
김영세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Youngse Kim	Professor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Seungcheol Lee	Vic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Insill Yi	Professor of Sogang School of Economics	
전병준	매일경제 논설실장	Byung-Jun Jeon	Chief Editor/Direc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전병찬	에버다임 대표이사	Jeon Byong Chan	CEO of Everdigm Corp.	

AWARD WINNERS

2014

Master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KIM DONG NYUNG
CEO & Chairman of
HANSAE YES24 HOLDINGS

Technology



조정일 코나아이(주) 대표이사
CHUNG IL CHO
CEO of KONA I Co., LTD.

IT Materials



장경호 이녹스 대표이사
Chang, Kyeong-Ho
CEO of INNOX Corporation

Industrial Products



전병찬 에버다임 대표이사
Jeon Byong Chan
CEO of Everdigm Corp.

Rising Star



김후식 뷰웍스 대표이사
Hooshik Kim
CEO of Vieworks Co., Ltd.

JUDGING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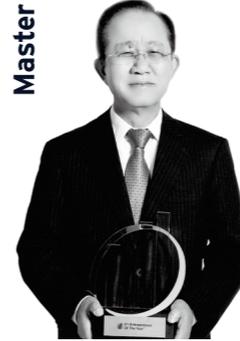
심사위원장

이장무 카이스트 이사장	Jang Moo Lee	Chairman of Board of Trustees of KAIST
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ung Ai Ka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Seungcheol Lee	Vice Chairman & CEO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전병준 매일경제 논설실장	Byung-Jun Jeon	Chief Editor/Director of Maeil Business Newspaper
정광선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Kwang S. Chung	Professor Emeritus of Finance at Chung-Ang University
정지완 솔브레인 대표이사 회장	Ji-Wan Chung	Chairman of Soulbrain Co., Ltd.

AWARD WINNERS

2013

Master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Chinkyu Kim
Chairman of ILJIN Group

Culture Technology



김영찬 골프존 대표이사
Youngchan Kim
CEO of GOLFZON

Chemical Products



정지완 솔브레인 대표이사 회장
Ji-Wan Chung
Chairman of Soulbrain Co., Ltd.

IT Display Products



김철영 미래나노텍 대표이사 사장
Chul-Young Kim
CEO & President of MNtech Co., Ltd.

Rising Star



이재원 슈프리마 대표이사
Jae-Won Lee
CEO of Suprema Inc.

Special



송병준 게임빌 대표이사
Byung Joon Song
CEO of GAMEVIL Inc.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故 송자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The late Ja Song	Chairman of Myoungji Educational Foundation
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ung Ai Kang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고광일 고영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사장	Kwangill Koh	CEO & President of Koh Young Technology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yung Suh Park	Professor of Finance a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이구택 포스코 고문	Ku Taek Lee	Advisor of POSCO
장용성 MBN 대표이사 부사장	Yong Sung Jang	Vice president & CEO of MBN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hul Joo Hwang	Chairman of the board & CEO of JUSUNG ENGINEERING

AWARD WINNERS

2012

Master



윤운수 필라 글로벌 회장
Yoon soo(Gene) Yoon
Chairman & CEO of FILA Global

Steel Products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The late Woon-Hyung Lee
Chairman & CEO of SeAH Group

Industrial Products



최명규 S&T 그룹 회장
Pyung-Kyu Choi
Chairman of S&T Group

Technology



한대근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사장
Dae-Keun Han
CEO & President of Silicon Works

AWARD WINNERS

2011

Master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사장
Dae-Gyu Byun
President & CEO of HUMAX

Banking & Capital Markets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
Ik-Rae Kim
Chairman of Kiwoom Securities

Industrial Products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대표이사 사장
Kyu-Dong Sung
President & CEO of EO Technics

Rising Star



고광일 고영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사장
Kwangill Koh
CEO & President of
Koh Young Technology

Special



김미경 이오에스 대표이사
Mi Kyung Kim
CEO of EOS Corporation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Jeung-Hyun Yoon	Former Ministe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yung Suh Park	Professor of Finance at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대표이사	Kyu-Dong Sung	President & CEO of EO Technics
안태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Tae-Sik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Professor
이구택	포스코 고문	Ku Taek Lee	Advisor of POSCO
장용성	MBN 대표이사 부사장	Yong Sung Jang	Vice president & CEO of MBN
故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Byung-Chul Jung	Vice Chairman & CEO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Rising Star



안건준 크루셀텍 대표이사 사장
Keon-Joon Ahn
President & CEO of CrucialTec

Special



남수정 섀넬푸드 대표이사
Caroline Nam
CEO of SUN AT FOOD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Hun Jai Le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Dae-Sik Kim	President of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박정인	현대모비스 고문	Jeong In Park	Executive Advisor of Hyundai Mobis
박종원	코리아리 대표이사 사장	Jong-Won Park	President & CEO of Korean Reinsurance Company
안태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Tae-Sik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Professor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Yong Sung Jang	Editor-in-Chief of Maeil Business Newspaper
故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Byung-Chul Jung	Vice Chairman & CEO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WARD WINNERS

2010

Master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Kyung-Bae Suh
President & CEO of AMOREPACIFIC

Industrial Products



류진 풍산 회장
Jin Roy Ryu
Chairman & CEO of POONGSAN

Technology



남광희 KH바텍 대표이사
Kwang-Hee Nam
CEO & President of KHVatec

Insurance



박종원 코리안리 대표이사 사장
Jong-Won Park
President & CEO of
Korean Reinsurance Company

Rising Star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JungJin SEO
Chairman of Celltrion

Special



최승옥 기보스틸 대표이사
Seung Ok Choi
President & CEO of KIBO STEEL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Hun Jai Le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Dae-Sik Kim	President of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박정인 현대모비스 고문	Jeong In Park	Executive Advisor of Hyundai Mobis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Kihak Sung	Chairman & CEO of Youngone Corporation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Jong-Yong Yun	Executive Advisor of Samsung Electronics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Yong Sung Jang	Editor-in-Chief of Maeil Business Newspaper
故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Byung-Chul Jung	Vice Chairman & CEO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WARD WINNERS

2009

Master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Hyeon Joo Park
Chairman of Mirae Asset

Industrial Products



허용도 태웅 대표이사 회장
Yong-Do Huh
Chairman of Taewoong

Entertainment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Taek-Jin Kim
CEO of NCSOFT

Consumer Products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Kihak Sung
Chairman & CEO of
Youngone Corporation

Rising Star



김달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사장
Dal-soo Kim
President & CEO of TLI

Special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Sung-Joo Kim
Chairperson & CEO of
SUNGJOO GROUP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Yoon-Dae Euh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강덕수 STX그룹 회장	Duk-soo Kang	Chairman of STX Group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Su-Keun Kwak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윤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Yoon-Suk Suh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Jong-Yong Yun	Executive Advisor of Samsung Electronics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Yong Sung Jang	Editor-in-Chief of Maeil Business Newspaper
故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Byung-Chul Jung	Vice Chairman & CEO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WARD WINNERS

2008

Master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Jae-Chul Kim
Founder & Chairman of Dongwon Group

Shipping Industry



강덕수 STX그룹 회장
Duk-soo Kang
Founder & Chairman of STX Group

Heavy Industry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Keh-Sik Min
Vice Chairman & CEO of Hyundai Heavy Industries

Rising Star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
Jae Seung Yoon
Vice Chairman of Daewoong Pharmaceutical

Special



박지영 컴투스 대표이사 사장
Ji-young Park
Founder & CEO of Com2uS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Chul-kyu Kang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Seoul
김신배	SK C&C 대표이사 부회장	Shin-Bae Kim	Vice Chairman of SK C&C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Su-Keun Kwak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운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Yoon-Suk Suh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Jong-Yong Yun	Executive Advisor of Samsung Electronics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Jin Kang Lee	President of Korean Bar Association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Yong Sung Jang	Editor-in-Chief of Maelil Business Newspaper

AWARD WINNERS

2007

Maste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Sam-Koo Park
Chairman & CEO of Kumho Asiana Group

Financial Services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Eung Chan Ra
Chairman of Shinhan Financial Group

Consumer Products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Seok-Keum Yoon
Chairman of Woongjin Group

Telecommunications



김신배 SKT 대표이사 사장
Shin Bae Kim
President & CEO of SKT

Rising Star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
Sang-Hwan Park
Chairman & CEO of Hanatour

JUDGING PANEL

심사위원장			
정운찬	서울대학교 교수	Un-Chan Chung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Chul-kyu Kang	Professor of University of Seoul
엄기영	MBC 사장	Ki-Young Ohm	President of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이운호	지식경제부 장관	Youn Ho Le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Yong Sung Jang	Editor-in-Chief of Maelil Business Newspaper
제프리 존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Jeffrey D. Jones	Lawyer of Kim & Chang
주인기	연세대학교 교수	In-Ki Joo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SAVE THE DATE TO JOIN THE BEST
ENTREPRENEURS IN THE WORLD.**



 **EY World Entrepreneur
Of The Year™**

MONACO | JUNE 2023

*How can one person
make a world of
difference?*

PROGRAM PARTNERS

SUPPORTER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유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향후 반세기는 이러한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와 함께 꿈꾸고 기회를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꽃피우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EY 최우수 기업가 상이 미래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정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Korea achieved astonishing levels of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half century as a result of persistent entrepreneurship. In the next half century, we must build on this quantitative growth and focus on qualitative growth. Entrepreneurship should create opportunities and improve society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is how the society of the future will flourish. We hope the EY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will inspire Korean business leaders and set a positive direction for future entrepreneurship.

MEDIA PARTNER

매일경제

매일경제

“세계 최고의 지식신문을 추구하는 매일경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글로벌 석학들을 한자리에 불러 지식의 향연을 펼치는 세계 지식포럼.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예고한 ‘한국보고서’를 시발로 매년 지식 강국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민보고대회. 매일경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신문입니다. 특히 ‘기업 육성의 지침’이라는 사시를 바탕으로 창간 이후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2007년 1회 개최부터 16회를 맞는 올해 시상식까지 EY의 최우수 기업가상의 후원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Maeil Business Newspaper seeks to be a leading knowledgeable newspaper that proposes future agenda. With this mission in mind, Maeil Business Newspaper holds various events: The World Knowledge Forum invites the world’s most renowned scholars and leaders to share their thoughts. The Vision Korea National Conference, which started in 1997 predicting the following economic crisis that hit Korea, grew into an annual event. Every year, Maeil Business Newspaper sets a new vision and presents Korea’s current paradigm through this event.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n Korea, Maeil Business Newspaper has also been making various efforts as a corporate companion. It is an honor and a great pleasure to sponsor the EY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program every year since its inception.

CONTACT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to find out more about the awards program.

EY Entrepreneur Of The Year Program Team

Sponsor Partner

이복한 경영지원부문대표
E. bokhan.lee@kr.ey.com

Brand,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Lead

박경희 상무
E. kyeunghye.park@kr.ey.com

박리라 과장
정유진 대리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exists to build a better working world, helping create long-term value for clients, people and society and build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nd technology, diverse EY teams in the 150 countries provide trust through assurance and help clients grow, transform and operate.

Working across assurance, consulting, law, strategy, tax and transactions, EY teams ask better questions to find new answers for the complex issues facing our world today.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About EY Entrepreneur Of the Year™

EY Entrepreneur Of The Year™ is the world's most prestigious business awards program for unstoppable entrepreneurs. These visionary leaders deliver innovation, growth and prosperity that transform our world. The program engages entrepreneurs with insights and experiences that foster growth. It connects them with their peers to strengthen entrepreneurship around the world. EY Entrepreneur Of The Year is the first and only truly global awards program of its kind. It celebrates entrepreneurs through regional and national awards programs in more than 145 cities in over 60 countries. Winners go on to compete for the EY World Entrepreneur Of The Year™ title.

ey.com/eoy

© 2022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918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Supporter



Media Partner

